

# 백신개발 4개사 “변종 코로나에도 예방효과” 기대

###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큐어백 “6주 내 새로운 백신 공급”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최소 4개 글로벌 제약사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번에 발견된 변종 코로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활용한 자사 백신이 변종 코로나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 동안 연구·정보 수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힌 CEO는 지난 21일 “우리 백신은 1270개가

넘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변종 코로나에서는 이 중 9개만이 바뀌었다”면서 “단백질 99%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신 백신 기술인 mRNA의 장점 중 하나는 변이체에 대항하기 위한 유전물질을 기존 기술과는 달리 신속하게 다시 설계해 주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사힌 CEO는 “원리상 mRNA 기술의 장점은 새로운 변이를 완전히 모방한 백신 제조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6주 안에 새로운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자사 백신 후보물질) AZD1222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특화된 단백질 스파이크의 유전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변이체에서 발견된 유전암호의 변화가 단백질 스파이크의 구조를 변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ZD1222를 접종하면 인체의 면역체계는 단백질 스파이크의 여러 부분을 인식하게끔 훈련된다”면서 “이로써 나중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과 손잡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조 자사의 백신 예방효과가 62~90%라고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모더나와 독일 큐어백 역시 영국에서 확산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한 큐어백은 바이러스 변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면서 변이는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모더나와 큐어백이 개발한 백신에도 mRNA 기술이 적용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한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더 전통적인 원리로 개발됐다. 영국 정부 최고과학자문관인 패트릭 발란스 경도 개발된 백신들이 변종 코로나에 맞서 면역 반응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머스크 “애플에 테슬라 팔려고 팀쿡과 접촉했지만 거부당해”  
애플 전기차 개발설 나오자 트윗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테슬라를 정보통신 업체 애플에 매각하는 방안을 타진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할 가능성을 논의하려고 팀 쿡(애플 최고경영자)과 접촉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쿡이 테슬라 인수합병과 관련해 회의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매각 의사를 쿡에게 전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지는 않았다. 테슬라는 모델3의 생산을 증대하는 2017년 중반부터 2019년 중반까지 자금난을 겪은 적이 있었다.

머스크는 당시 테슬라의 고층을 설명하며 파산한 달 전까지 물린 적도 있었다고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8년 테슬라의 상장 폐지안을 트윗했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테슬라는 2019년 3분기까지 고층을 털어내고 지속적인 이익을 내는 반전에 성공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해 현재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6천400억 달러(약 708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고가 자동차 업체다. 머스크의 발언은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 승용차를 2024년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쏟아진 뒤에 나왔다. 머스크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상하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올해 전 세계 언론인 21명 ‘보복 살해’에 희생...멕시코 최다  
CPJ “지난해보다 2배 증가”

올해 전 세계에서 취재 활동을 하다 원한을 사 살해된 언론인이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2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올해 보복 살해당한 전 세계 언론인이 지난해 10명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취재와 기사 작성 등 과정에서 범죄조직이나 무장단체의 원한을 사 보복 범죄의 타깃이 된 경우가 다. 여기에 위험한 취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언론인을 포함해 올해 모두 30명의 전 세계 언론인이 업무상 이유로 숨졌으며, 업무와 관련된 피살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경우도 15명 더 있다고 CPJ는 밝혔다.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나 사고사 등은 제외한 수치다.

언론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멕시코였다. 멕시코에서는 올해 최소 4명의 언론인이 범죄조직 등의 직접 표적이 돼 살해됐으며, 1명이 범죄 현장 취재 중에 총에 맞아 숨졌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멕시코 언론인 4명도 CPJ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멕시코에 이어 아프가니스탄과 필리핀에서도 각각 4명과 3명의 언론인이 보복 살해의 희생양이 됐다. /연합뉴스



모더나 코로나19백신 접종하는 파우치 소장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가·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2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NIH 의료센터에서 미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 비행기 뜨기 직전 강아지와 ‘비상탈출’ 미국 남녀 기소돼

미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한 남녀가 비상 탈출구로 기내를 빠져나가 운항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델타항공은 전날 뉴욕 라 Guardia 공항에서 애틀랜타로 향하는 자사 항공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비행기는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승객인 안토니오 머독(31)과 여성인 브리아나 그레코(27)가 자신의 강아지와 함께 탈출했다.

목적자들은 머독이 공항 상태에 빠져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켜 뒤 뛰어내렸다고 AP에 전했다. 곧이어 그레코가 강아지와 함께 뛰어들었다. 이들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중과실 상해, 무단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머독은 일간 뉴욕포스트에 자신이 당시 공항발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에게 내려달라고 서너 번 요청했다”라면서 “그들이 비행기를 멈추겠다고 했는데도 실제로 멈추지 않았고, 난 어지럽기 시작했다. 비상 탈출구가 아니라 일반 출입문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승객 한 명은 뉴욕타임스에 머독과 그레코가 탈출하기 이전에 좌석을 수차례 바꾸며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머독은 승무원에게 자신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있다며 착석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목격자는 덧붙였다. 결국 해당 항공기는 탑승 게이트로 돌아왔고 나머지 승객들은 다른 항공기로 갈아탔다. 이들의 강아지는 뉴욕시의 동물보호소에 임시로 맡겨졌다. /연합뉴스

## 유럽 코로나 사망자 50만명 넘어...60일 만에 2배 증가

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5개국서 하루 수백명씩 숨져  
변종 바이러스 발견으로 악화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를 기준으로 22일(현지시간) 밤 11시(GMT)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0만2293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유럽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50만명을 넘어선 지역이 됐다. 로이터

자체 통계로는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약 30%가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에서 지난 2월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이후 누적 사망자가 25만명을 넘는 데 8개월이 걸렸지만, 50만명이 되는 데는 불과 6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에서 하루 수백명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으며, 이들 5개국에서 유럽 사망자의 60%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영국에서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해진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도 나온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이탈리아와 함께 덴마크, 프랑스에서도 최근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변종 코로나19가 확인된 일부 지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수십개 국가가 영국과 교통편 완해를 잠정 중단했다.

유럽 국가들은 변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국발 승객을 선별해 도착과 동시에 격리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영국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승인해 접종했으며,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